

보도시점 2024.4.29(월)  
사진배포 14시 이후

배포 2024.4.29.(월)

## 조달청-신용보증기금, 혁신적 조달기업 금융지원과 스타트업 육성 강화를 위해 맞손

- 벤처나라 혁신제품·우수제품·수출유망(지패스)기업까지 모두 보증료 차감 혜택
- ‘스타트업 네스트’ 선정 시 혁신적 조달기업 우대, 스타트업 대상 조달전시회 및 교육 확대

조달청(청장 임기근)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29일 조달청에서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범정부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양 기관의 혁신적 기업 성장제도 연계를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조달청은 혁신적 조달기업의 주된 애로사항 중 하나인 금융 및 투자지원 강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금융지원 뿐 아니라 투자설명회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 노력을 펼치고 있다.

두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기존 혁신제품과 벤처나라 지정 기업만 대상이었던 보증료 차감 혜택이 우수조달물품과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에까지 확대되며,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육성 제도인 ‘스타트업 네스트\*’ 선정 시 혁신적 조달기업을 우대한다.

\*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혁신 스타트업(창업 3년 이내) 발굴제도로, 매년 150여개사 선발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의 혁신 스타트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조달전시회 참여 및 조달제도 교육 등을 제공하는 한편, 조달청이 운영하는 물품목록제도를 기반으로 구축한 신보 품목분류체계 운영 및 개선을 위한 물품목록 분야 협력도 추진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시장 형성과 함께 금융·투자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적 조달기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는 한편, 공공판로나 정책금융 뿐 아니라 마케팅, 전문인력, 수출 등 전방위 기업성장 지원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신성장조달기획관 신성장조달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성환 (042-724-7305)
		담당자	사무관	박새라 (042-724-7238)

